

광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126곳 선정

협치·여성가족 친화 등 6개 사업 14억1900만원 투입 회계실무·사업 컨설팅 지원

광주시가 '2023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마을공동체 126곳을 선정하고, 14억 1900만원을 지원한다.

'2023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광주형 마을자치공동체 조성을 위해 5개 부서가 통합공모로 추진했다.

지원사업은 ▲광주 협치마을 ▲마을교육공동체 ▲인권마을 ▲광주 마을형 복지공동체 구축 ▲여성가족 친화마을 ▲도시농업 특화마을 등 6개다. 앞서 광주시는 각 사업별 자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마을 공동체를 선정하고, 총괄조정위원회의 사업 중복성 심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을 최종 확정했다. 사업 대상 마을공동체는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야별로는 진정한 마을자치 실현을 위한 '광주 협치마을 지원사업'으로 마을 공동체 14곳이, 마을과 학교가 함께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으로 61곳이 선정됐다.

또 마을에서부터 주민 스스로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에 17곳이, 마을의 복지 수요 파악을 통한 돌봄 연계 및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광주 마을형 복지공동체 구축 사업'에는 15곳의 마을 공동체가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여성역량 강화 및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여성가족 친화마을 조성사업'에 8곳, 공동체

를 거쳐 마을 공동체를 생활 속 도시농업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농업 특화마을 지원사업'에 11곳 등이 지원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광주시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구, 광주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자치구 마을공동체 지원 관련 센터와 함께 선정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회계실무지원단 운영,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선영 광주시 자치행정과장은 "마을 내 다양한 공동체가 협력해 실행하는 마을 활동은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광주의 성장과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 정신과 가치가 더욱 확산되고 참다운 주민자치기 실현될 수 있도록 2023년 광주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를 추진한 결과라고 센터는 설명했다.

특히 인공지능, 스마트 농업, 스타트업, 전통주 등 관련 행사를 새로 개최해 13억원 매출액을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

센터는 2026년 개관을 목표로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 사업에 맞춰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이다.

김대중컨벤션센터 김상목 사장은 "지난해는 광주시민의 사랑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모든 직원이 합심 단결했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준 덕분에 매출액 신장, 가동률 증가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DJ센터 지난해 매출 206억원...역대 최대

전년 대비 17.5% 증가

김대중컨벤션센터가 개관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은 206억원으로 2021년(176억원)보다 17.5% 증가했다. 연간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88억)을 넘어 2005년 개관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시장 가동률은 55.1%로 전년 대비 14.4%p, 전시사업 매출액(109억원)도 전년(88억원) 대비 23% 증가했다.

'꿈과 즐거움이 있는 MICE(마이스) 전당'을 경영 비전으로 신사업 개발, 수익성 개선, 경영체계 선진화, 사회적 가치 창출 등 4대 분야 과제

를 추진한 결과라고 센터는 설명했다.

특히 인공지능, 스마트 농업, 스타트업, 전통주 등 관련 행사를 새로 개최해 13억원 매출액을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

센터는 2026년 개관을 목표로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 사업에 맞춰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이다.

김대중컨벤션센터 김상목 사장은 "지난해는 광주시민의 사랑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모든 직원이 합심 단결했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준 덕분에 매출액 신장, 가동률 증가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노후경유차 폐차

LPG화물차 구입 지원 188대 대당 100만원씩

광주시는 "지난 2일부터 노후경유차 폐차와 매년 배출량이 적은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보조금은 1억8800만원을 투입해 대당 100만원씩 총 188대를 지원한다.

대상은 광주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1t 이하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까지며,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에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광주시 서구 내방로 111, 대기보전과)으로 ▲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4월 초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선정자는 14일 이내 신차 구매 계약서를 광주시 대기보전과로 제출하고, 4개월 이내 폐차와 신차를 구입한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반도체 수급 문제 등 신차 출고가 지연될 경우 차량을 계약한 대리점을 통해 광주시로 출고지연확인서를 제출하면 청구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정신 광주시 대기보전과장은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신규 등록이 제한될 예정인 만큼 신차구입 시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사회서비스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성금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최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지원 성금 576만원을 기탁했다. 성금 모금에는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기관인 북구·서구·광산구 종합재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문상담센터, 희망원, 나눔여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대체인력지원센터, 노인맞춤돌봄광역지원기관들이 참여했다.

광주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 행정동 발굴

97개 동 대상...상위 3곳 시상

광주시가 재활용품 등 분리배출이 우수하고 정결한 행정동을 발굴해 시상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분리배출과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근절하기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가 중심이 돼 자원순환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우리동네 분리배출 클래스'를 추진한다.

'우리동네 분리배출 클래스'는 광주시 97개 행정복지센터가 자율 참여하며, 지난 1일부터 시즌 1을 시작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평가항목은 ▲분리배출률 적정성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수거보상제 실시 여부 ▲주민자치위, 통장단 등과의 연계성 ▲분리배출 우수사례 발굴 등이다.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 결과를 합산해 분리배출 클래스가 남다른 3곳(최우수상 500만원, 우수 300만원, 장려 200만원)을 시상한다.

광주시는 도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재활용가능 자원이 고품질 원료로 수거될 수 있도록 자치구의 단독주택과 상가를 중심으로 한 재활용 전용 봉투 제작 배부 사업도 지원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원자폭탄 피해자 요양생활수당 지급

1세대에 월 5만원씩

광주시는 "이달부터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이 일본에 투하한 원자폭탄에 피폭된 피해자에게 월 5만원씩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광주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급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 중 수당 지급을 신청한 자로, 올해 1월1일 기준 광

주시 거주자에 한해 1월부터 소급 지급한다.

수당은 최초 1회 신청으로 매월 지급하며, 자격 대상 여부(거주지·생존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송해자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요양생활수당 지급이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 확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4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모집

단체 활동가·정책 전문가 등 11명

광주시는 "오는 10일까지 '제4기 광주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11명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광주시장을 비롯한 단언직 실·국장과 청년정책 활동가·전문가 등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이 필요한 청년정책을 심의하며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광주시 최고 청년정책 심의·의결기구다.

이번 공모는 지난 2021년 3월 출범한 제3기 청

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임기가 지난 4일 만료됨에 따라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모집 대상은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또는 청년정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에서 내려받아 작성하고, 오는 10일까지 이메일(kassei@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난 1월17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5대 분야 93개 사업(예산 2053억원)의 2023년도 청년정책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대중교통 모니터단, 시내버스·택시 서비스 상시 점검

광주 시내버스와 택시 친절도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 시민모니터단' 270명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공모를 거쳐 선발된 회사원·주부·어르신·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으로 구성된 '대중교통 시민모니터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민모니터단은 시내버스와 택시에 승차해 친절도와 안전운행, 교통시설물 실태

를 점검하고 대중교통 관련 불편과 개선사항을 시 홈페이지·우편·메일 등을 통해 제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내버스는 4건, 택시는 2건 이상 제보자에게는 월 1만원의 활동비를 제공한다.

시민모니터단의 제보 사항은 해당 부서와 운수업체에 통보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수업체와 친절 기사 추천 등 평가자료로 활용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

손해보험협회